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2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8일 (음력 11월 22일) 월요일

이개호 '광폭행보'...전남지사 출마 경쟁 후끈

지난해 전남도지사 출마의 뜻을 비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담양·합평·영광·장성)이 신년 초 전남 곳곳을 누비며 광폭행보를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유력 전남지사 출마 예정자인 이 위원장의 행보가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본격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민의당 등 지역정부가 한껏 달아오를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7일 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연초들어 영광과 해남·신안 하의도, 나

영광·해남·신안·나주 등 전남 곳곳 누벼

국민의당 박지원·주승용 행보에도 '관심'

주 등 전남 지역 곳곳을 돌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남 지역위원회 당직자들과 영광 예술의전당에서 영화 '1987'를 관람했다.

지난 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시공부를 했던 해남 대흥사 7번방에서 주지 월우

스님과 환담을 가졌다.

앞서 이 위원장은 보좌진 등 일행 8명과 지난 1일 DJ 생가를 방문, 방명록에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고 남기기도 했다. 전남 하의도에 들어온 그는 1박을 한 뒤 작은 산에 올라 신년 해맞이를 했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수세부쟁 30주년을 맞아 나주를 찾아 당시 수세부쟁의 주역이었던 박선재 씨로부터 수세부쟁의 의미를 청취하는 한편 당시의 투쟁 주역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5·18국립묘지 방문을 시작으로 민주당 전남지역 각 시·군 지역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신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2017년 전남은 정권교체의 진원지였다"며 "2018년에도 대한민국과 전남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자"며 지방선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광폭 행보는 지방선거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봐도 될 것 같다"면서 "국민의당 출마예정자들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출마의 뜻을 비춘 국민의당 박지원 주승용의원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날 여수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안철수 대표와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대표와 갈등이 더 깊어진 것 같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갈등이 훨씬 깊어졌다"며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안 대표가 절대 통합의 통자도 안 꺼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거짓말하고 통합을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당 통합 문제로 중앙정처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민주당이 위원장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당의 진로가 정리되는대로 도지사 출마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지사 출마 예상지에는 민주당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이석형 전 함평군수 등이 있다.

최남규 기자



광주 망월동서 이한열 열사 참배 지난 6일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5·18 옛묘역)의 이한열 열사 묘소에서 시민이 참배를 하고 있다.



접대비?

기초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비합리적이고 사용이 제한된 공휴일에도 사용되는 등 군민들의 질서가 바람직하게 없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장흥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먹고 마시는 용도로 사용되고 사용이 제한된 공휴일에도 18차례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흥군의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흥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2016년 7월 1일부터 ~ 2017년 11월 28일까지 총 107건 3,110여만 원 중식대차 99건 기타 8건 명절 선물 용품 등으로 확인됐다.

지방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이다. 김성 장흥군수와 김복실 군의회 의장 등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취재 서은홍·자료사진=뉴시스



김성 업무추진비란...



김복실 꼭 규정대로만 써주세요



김성 자비가 쓸 돈 인디 나는 뭐라고 말 못하제

5·18 암매장 진실규명 '오늘부터 다시 시작'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인근 우선 발굴 작업 대상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을 위한 암매장 발굴이 올해도 계속된다.

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르면 8일부터 옛 광주교도소에서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 작업이 다시 시작된다. 교도소 북쪽 담장 인근, 1980년 5월 이

후 테니스장과 주차장이 생겼던 지역이 우선 발굴 작업 대상이다.

현재는 5m 가량의 흙이 쌓여 있다. 2월 말 또는 3월초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앞서 이 흙을 굴삭기로 걷어낼 예정이다. 기념재단은 지금까지 확보한 제보와

증언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도소를 비롯해 또 다른 암매장 예상 지역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재까지 양심 고백이 나오지 않고 있는 5·18 당시 광주에 내려왔던 7공수와 11공수 군인들의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성과도 있다. 11공수 간부급 인사와 접촉해, 1988년 국회 5공 청문회 당시

전현직 간부들을 상대로 수역원의 예상을 틀어 재교육을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기념재단은 이 같은 증언의 사실 여부를 가린 뒤 암매장을 비롯해 80년대 전두환 정권 차원의 5·18 역사 왜곡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38년 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된 5·18 행방불명자는 모두 82명으로 이 중 6명만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시신을 찾았다.

기념재단은 최소 76명, 많게는 수백 명의 행방불명자 암매장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신봉우 기자



아이에게 꿈을 읽어주세요

지금,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1:1 책 읽어 주기가 시작됩니다.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납니다.

한국어론진흥재단